

# KMI 북방물류리포트

**VOL.212**  
APR 8 2022

**발간년월** 2022년 4월 8일(통권 제212호) **주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발행인** 김중덕 **총괄** 이주호 **감수** 최재선 **담당** 김엄지·유지원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자료문의**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TEL** +82-51-797-4776 **FAX** +82-51-797-4659



## 주요 동향

- 유럽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방안은?
- 러, 대러 제재 관련 해양·수산·조선 분야 지원
- 러시아, 불법 조업 선박 항만 입항 금지 추진
- 일본, '러시아 석유·LNG 사업철수 의사 없다.'
- Kinross Gold, 러시아 자산 Highland에 매각
- 아제르바이잔, 유럽으로 가스 수출 늘린다.

## 주요 통계

- 2022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액체화물)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 \* 러시아 극동지역 세관 홈페이지 접속 불가로 업데이트하지 못하였습니다.  
세관의 홈페이지가 복구되는대로 게재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 주요 동향



### 유럽의 대러 제재에 따른 러시아의 대응방안은?

그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위원장



자료: <https://www.offshore-energy.biz/eu-bans-russian-vessels-from-ports-edges-closer-to-banning-russian-oil-imports/>

#### ■ 러시아는 러시아 선원 문제는 갈등의 대상이 아니라, 인력 부족을 해결할 수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

-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선원이 타고 있거나 러시아 화물을 운송하는 선박 모두를 제재대상으로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했음
- 이에 대해 영국 및 유럽연합은 러시아 국적 선박 및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선박만 유럽연합(EU) 항만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했음

#### ■ 유럽 집행위원회는 러시아산 철·금속을 유럽연합으로 수입하는 것을 금지했음

- 단, 모든 철과 금속 제품을 제재대상으로 포함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석탄 역시 비슷한 시나리오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음
- 개별 유럽국가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선언을 비준하는데 시간이 소요되며, 석탄에는 그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임
- 유럽연합은 석탄 수입 금지, 주요 러시아 4개 은행 거래 전면 금지, 러시아 선박 및 러시아인이 운영하는 선박의 유럽 항만 입항 금지 등을 대러 제재 내용을 포함했으며, 그 외에도 석유 수입까지 검토 중임

##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6개월 이내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될 것이라고 발표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러시아 내 외국기업이 활동을 중단하면서 물류 상황이 심각해졌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특히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글로벌 식량 안보에 우려를 표명했음
- 우크라이나 사태로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급등했으며, 자국 식량안보를 위해 러시아가 수출을 금지하자 러시아산 밀이나 옥수수를 수입해오던 중동 및 아프리카 국가들의 식량안보가 불안정해짐

김엄지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umjikim@kmi.re.kr/051-797-4776)

### 참고자료

- <https://www.rzd-partner.ru/wate-transport/comments/zapret-na-zakhod-rossiyskikh-sud-ov-v-porty-es-k-chemu-gotovitsya/> (2022.4.7. 검색)
- <https://www.kommersant.ru/doc/5294269> (2022.4.7. 검색)
- <https://www.vedomosti.ru/economics/news/2022/04/05/916744-putin-zayavil-ob-oslozhenii-situatsii> (2022.4.7. 검색)

## 러, 대러 제재 관련 해양·수산·조선 분야 지원

그림. 러시아 내에서 건조된 어선



자료: <https://rusfishjournal.ru/news/%D0%BC%D0%B8%D0%BD%D1%81%D0%B5%D0%BB%D1%8C%D1%85%D0%BE%D0%B7-%D0%BF%D1%80%D0%B5%D0%B4%D0%BB%D0%BE%D0%B6%D0%B8%D0%BB-%D0%BF%D1%80%D0%BE%D0%B4%D0%BB%D0%B8%D1%82%D1%8C-%D0%BD%D0%B0-%D0%B4%D0%B2%D0%B0/>

### ■ 농업부, 투자쿼터 범위 내 어선 건조사업 기간 및 어획량 쿼터 제공기간 연장 검토

- 러시아 농업부는 대러 제재 도입과 관련해 투자쿼터 내에서 진행되는 어선 건조 사업의 이행 기간을 2년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였고, 관련 정부 법령 초안이 러시아 정부 규제 홈페이지(regulation.gov.ru)에 게재되었음
- 이는 미국을 포함하여 대러 경제 제재에 동참하는 국가들 및 국제기구 등의 비우호적 조치에 대응하여, 수산분야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 경제 조치 적용에 따른 것임
- 또한, 관련 법령 초안은 투자목적으로 이미 체결된 수산자원 어획량 쿼터를 고정적으로 제공하는 내용의 협약을 2년간 자동 연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음
- 법령 초안의 내용에 따르면, 현재 기준 2,210억 루블 규모의 어선 건조를 위한 계약 65건이 체결되었으나, 건조 일정이 당초보다 훨씬 늦어져 고객에게 인도가 완료된 선박은 불과 6척이며, 37척은 아직 건조 중으로, 나머지 계약 건들에 대해서는 선박 건조가 시작되지



않은 상태임

- 더불어 빅토리아 아브람첸코(Victoria Abramchenko) 부총리는 SNS를 통해 2년간 발생할 수 있는 수산분야 투자 사업 이행 실패에 대한 벌금 폐지 제안을 지지하겠다고 나섰음

그림. 러시아 농수산물 철도 운송 모습



자료: <https://israil-95reg.livejournal.com/3743771.html>

## ■ 러 정부, 농수산물 철도 운송을 위한 우대 요율 보조금 20억 루블 지원 예정

- 미하일 미슈스틴(Mikhail Mishustin) 러시아 총리는 농수산물 철도 운송 우대 요율 관련 보조금 규모를 확대할 목적으로 총리령에 서명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2년에는 추가 보조금 20억 루블이 할당될 예정임
- 러시아 정부는 운송료 지원을 통해, 농산물 수송비용 절감과 러시아 지역으로의 농수산물 공급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음
- 러시아 농민들은 국가지원금을 통해 비료뿐만 아니라 곡물, 기름 생산 작물, 농산 및 수산물의 공급량을 늘릴 수 있을 것이며, 총 100만 톤의 화물 수송량 증가가 예상됨
- 농산물 철도 운임에 대한 국가지원금은 2019년부터 시행된 것으로, 일반 철도 화물 및 컨테이너 화물 등 모든 종류의 화물 운송이 포함되며, 우대 운임 제공으로 인한 철도운송사의 이익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해당 운송사들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음

- 미슈스틴 총리는 3월 24일 개최된 러시아 정부 회의 참석하여, 현재의 새로운 국면에서는 이 같은 농산물 철도 운임 보조금 규모가 충분하지 않다고 언급하는 등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강조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 참고자료

- a) <http://morvesti.ru/news/1679/94651/> (2022.4.7. 검색)
- b) <https://portnews.ru/news/327217/> (2022.4.7. 검색)

# 러시아, 불법 조업 선박 항만 입항 금지 추진

그림. 러시아 항만으로 진입하는 선박 모습



자료: <https://www.tks.ru/logistics/2022/03/24/0006>

## ■ 법 개정 추진으로 인해 불법 조업 선박의 러시아 항만 진입 금지 가능성 커져

- 빅토리아 아브람첸코(Victoria Abramchenko) 러시아 부총리는 불법 조업 선박에 대해 러시아 항구 입항을 금지시키기 위한 관련법률 개정 초안이 작성되었다고 알림
- 러시아가 2020년 12월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Illegal, Unreported and Unregulated Fishing, IUU)’의 예방·억지·근절을 위한 항만국조치에 관한 국제 협정’을 비준함에 따라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법 조업 선박으로 확인되는 선박의 경우 러시아 입항이 금지될 가능성이 높아짐
- 불법 조업 선박 내에 비상상황이 발생했거나, 안전 관련 정부기관의 검사 등 목적을 이유로 입항하는 경우에 한해 예외를 허용할 예정임
- 아브람첸코 부총리는 불법 조업으로부터 러시아 국내 수산 및 어업 시장을 보호하고, 러시아

수산 자원에 피해를 입히는 불법적 조업 활동에 대응하기 위해 이 법률을 개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음

- 그는 또 불법으로 조업된 수산물의 자국 수산시장 유입을 막고, 해양생물 다양성 보전과 수산경제 발전을 위해 법 개정이 매우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나섰음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발레리아 샤페로바 센터원, KMI 러시아연구센터



# 일본, ‘러시아 석유 · LNG 사업 철수 의사없다.’

## ■ 러시아는 가스 수입대금을 루블화로 결제 요구

-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3월 31일 러시아 정부가 수입대금을 루블화로 지불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산 가스 공급을 금지하는 명령에 서명한 가운데,
- 일본의 하기우다 고이치 경제산업상은 이러한 조치가 러시아로부터 LNG 수입에 즉각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발표함

## ■ 일본, ‘이 조치에도 LNG 사업 중단 계획이 없어’

- 일본은 자국 에너지 안보에 필수적이라고 보는 사할린-1, 2 사업과 북극 LNG-2 사업의 중단이나 후퇴계획은 없다고 입장을 표명함
- 사할린-1 사업은 중동산 원유 수입량의 약 90%를 의존하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중동 외 회귀 원유 조달원이며, 사할린-2 사업은 일본 국내 LNG 수입량의 약 9%를 공급하고 전력 공급량의 약 3%를 차지함
- 일본 정부가 이들 사업에 지분을 보유함과 동시에 천연자원의 장기적 공급 권리를 확보하는 상황에서, 이 프로젝트들은 에너지 안보적으로 매우 중요함

## ■ 러시아는 일본 LNG 및 각종 자원수입량의 상당 부분 차지

- 일 재무성 데이터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수입한 LNG는 2021년 일본의 총 LNG 수입량 7,432만 톤 중 9%를 차지했으며, 러시아가 일본의 LNG 수입국 중 다섯 번째로 큰 공급국임
- 사할린-2 프로젝트에서 연간 960만mt의 LNG 생산량 중 절반 이상이 일본 인수 업체에 위탁되며, 일본이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거의 모든 LNG가 사할린-2 사업을 통해 수입됨
- 또한, 러시아는 호주와 인도네시아에 이어 세 번째로 큰 석탄 공급국으로 재무성에 따르면 1,973만 4천 톤을 공급했으며, 이는 일본 전체 수입량의 11%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일본, 에너지 수입 대금의 루블화 결제 요구를 거절할 방침

- 일본 기시다 총리는 정부가 에너지 수출에 대한 대가를 루블화로 지불하라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요구를 거절할 것이라고 언급함
- 또한 일본은 영국, 미국, 캐나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와 함께 3월 28일 공동성명을 통하

여, 가스 공급계약들이 유로 또는 달러로 지급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함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

#### 참고자료

- a) [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20401\\_32/](https://www3.nhk.or.jp/nhkworld/en/news/20220401_32/) (2022.4.5. 검색)
- b) <https://www.spglobal.com/commodity-insights/en/market-insights/videos/market-movers-europe/040422-oil-iea-us-strategic-reserves-release-energy-security-gas-uk-germany-gazprom-russia-rubles> (2022.4.5. 검색)

# Kinross Gold, 러시아 자산 Highland에 매각

## ■ 캐나다 광산업체 Kinross Gold社は 러 자산을 Highland Gold社에 매각

- Kinross는 미국, 브라질, 러시아, 모리타니, 칠레, 가나, 캐나다에서 광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캐나다 금광회사로 러시아 금광회사인 Highland Gold에 러시아 자산 100%를 매각함 (총 6억 8000만 달러 규모)
- Highland Gold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금광회사로 쿠폴(Kupol) 광산과 우딘스크(Udinsk)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추코트카(Chukotka), 하바롭스크(Khabarovsk) 지역 등 러시아 내 여러 광산을 운영 중임

그림. 쿠폴의 Kinross 작업현장



자료: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kinross-selling-russian-business-to-highland-gold-for-us680-million/>

## ■ 지난해 Kinross는 러시아에서 전체 금 생산량의 23% 공급

- Kinross는 러시아에서 약 25년간 광산을 운영했으며, 쿠파 광산은 4억 4,300만 달러를 벌어들여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임
- Kinross는 2007년 32억 달러에 Bema Gold社를 인수하면서 러시아에 진출했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쿠파광산 프로젝트를 시작함
- 또한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 상황에서도 무사히 사업을 진행하기도 했음

## ■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서방 제재를 준수해야 하는 상황

- 러시아에서 사업을 하는 몇몇 회사들은 기업 이미지 훼손을 피하고, 국제제재에 동참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해야 있음
- 서방 정부들은 자국 은행의 SWIFT를 금지하고, 중앙은행의 외환 자산을 동결하는 등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가하고 있음
- Exxon Mobil社와 Ford Motor社도 러시아에서 운영을 중단하거나 철수함
- 이번 Kinross社의 매각 관련 러시아의 승인과 부수적 협정의 마무리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나, 이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러시아에서 서방 기업의 자산을 매각한 첫 사례임

박예나 전문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yena719@kmi.re.kr/051-797-4763)

### 참고자료

- a) <https://www.theglobeandmail.com/business/article-kinross-selling-russian-business-to-highland-gold-for-us680-million/> (2022.4.5. 검색)
- b) <https://www.mining.com/kinross-gold-sells-russian-assets-to-highland-for-680-million/> (2022.4.5. 검색)
- c) <https://www.reuters.com/business/kinross-gold-sell-russian-assets-680-mln-2022-04-05/> (2022.4.5. 검색)

## 아제르바이잔, 유럽으로 가스 수출 늘린다.<sup>a)</sup>

### ■ 아제르바이잔·불가리아, 가스 파이프라인 연결에 합의

- 최근 아제르바이잔과 불가리아가 유럽으로 가스 수출을 늘리기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트랜스아드리아나 가스 파이프라인(TAP)과 그리스-불가리아 파이프라인(Interconnector Greece-Bulgaria, IGB)을 서로 연계하는 방안에 합의하였음
- 그리스-불가리아 구간 사업자인 ICGB는 그리스 코모니티(Komotini)에 위치한 IGB의 가스 측정소와 TAP 연결 공사가 마무리되었다고 밝혔음
- ICGB는 연결 직후 연간 10억 입방미터 규모의 가스를 아제르바이잔에서 불가리아로 수출할 수 있으며, 향후 그 규모를 30억 입방미터로 증가시킬 방침인데, 현재 설비 수준으로도 목표량을 수용할 수 있다고 강조함
- IGB와 TAP 연계를 통한 가스 공급은 2022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또한 아제르바이잔 가스가 그리스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되었음
- 아울러 이번 사업 결과 불가리아 내 러시아 가스의 독점적 지위를 약화시켜, 러시아 가스의 비중을 35%까지 낮출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음
- 테오도라 게오르기예바(Teodora Georgieva) ICGB 대표이사는 두 파이프라인의 연계가 성사되었다는 것에 대해 지역 수준에서 가스파이프라인에 접근하지 못하는 불가리아 지자체에 대한 가스 공급이 확대될 것을 기대함과 동시에
- 불가리아를 TAP·남부 가스 회랑·TANAP(Trans Anatolian Pipeline) 및 그리스 알렉산드로폴로스(Alexandropoulos) 소재 LNG 터미널 등 남서부 유럽을 잇는 거대한 가스 인프라 체계에 합류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불가리아 측은 이미 아제르바이잔 국영석유회사 SOCAR에 가스 구매 계약을 타진한 바 있음

### ■ 불가리아, 아제르바이잔 가스 수입 확대 방안 마련 중

- 두 파이프라인의 연계 사업 이후 파이프라인의 용량을 연간 50억 입방미터로 증가시키는 두 번째 사업안이 제안되었음. ICGB사는 카스피해 샤 데니즈(Shah Deniz) 가스콘텐세이트전에서 생산된 가스를 불가리아로 운송하는 것을 구상하고 있는데, 총 182km의 파이프라인 중 150km가 불가리아를 통과하고 있음. 이처럼 남부 가스 회랑의 확대를 통해 남부 및 중부 유럽 국가는 천연가스를 수입할 대체 루트를 확보하게 될 것임



- TAP의 총 길이는 878km로, 그중 550km는 그리스 북부를, 215km는 알바니아 영토를, 105km는 아드리아해를, 8km는 이탈리아 남부를 통과하고 있음
- 한편, 가스 사업 관계자들은 앞으로 TAP 라인 용량을 연간 200억 입방미터로 늘릴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그림. TAP 파이프라인(청록색)과 IGB 파이프라인(점선)



자료: <https://www.euractiv.com/section/energy/news/russia-can-use-trans-adriatic-pipeline-commission-confirms/>

조용성, 상트페테르부르크국립대학교 박사과정  
(mirinae2929@gmail.com)

#### 참고자료

a) <https://denizxeber.az/2022/03/27/az%C9%99rbaycan-qazi-ucun-daha-bir-yol-acildi-ild%C9%99-3-milyard-kubmetr-satilacaq/> (2022.3.29. 검색)



## 주요 통계



표. 2022년 2월 러시아 해역별 항만 물동량(건화물 및 액체화물)

(단위: 백만 톤, %)

수역*	건화물	액체화물	합계	2021/2022 증감율**
극동지역	11.8(+5.3%)	5.6(+2.6%)	17.4	+4.3%
북극해	2.0(+4.9%)	5.8(+10.4%)	7.8	+9.0%
발트해	8.3(-1.9%)	11.5(+15.3%)	19.8	+7.5%
아조프-흑해	9.1(+2.2%)	12.8(+13.4%)	21.9	+8.4%
카스피해	0.2(-7.5%)	0.2(-36.0%)	0.4	-25.7%
합계	31.4(+2.2%)	35.9(+11%)	67.3	+6.8%

\* 주: 극동해역: 블라디보스톡, 자루비노, 올가, 포시에트, 나호트카, 보스토치니, 바니노, 소베츠키야가반, 데-카스트리스, 네벨스크, 홀름스크, 프리고로드노예, 마가단, 페트로파블롭스크 캄차스키

북극해: 무르만스크, 칸달라크샤, 나리안마르, 두딘카, 아르한겔스크, 오네가, 바란데이, 페벡, 사베타

발트해: 상트페테르부르크, 프리모르스크, 브보스크, 비소츠크, 우스트-루가, 칼리닌그라드

아조프-흑해: 노보로시스크, 겔렌지크, 투압세, 타간로크, 아조프, 로스토프 나 도누, 다망, 템류크, 카프카즈

카스피해: 아스트라한, 올라, 마하치칼라

\*\* 주: 누적 물동량 기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portnews.ru/news/325191/>(2022.3.4. 검색)

b) <https://portnews.ru/news/326442/>(2022.3.24.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출입 품목 규모

(단위: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01-24	식료품 및 원자재	488,113.1	58,574.3	2,160.9	3,514.4	490,274	62,088.7
25-27	광물 제품	631,154.4	24,174.4	40,838	53,606.2	671,992.3	77,780.5
27	연료 및 에너지 제품	497,367.4	20,609.1	511	0.1	497,878.4	20,609.2
28-40	생고무 화학 제품	4,374	79,626.6	1,178.4	870.8	5,552.4	80,497.6
41-43	가죽원료모 피 제품	8.6	2,080.9	9.1	200.9	17.7	2,281.8
44-49	목재 및 펄프, 종이 제품	90,615	10,273.9	415	269.5	91,030	10,543.4
50-67	섬유, 섬유제 품 및 신발	399.6	48,443.3	65.7	1,446.8	465.2	49,890.1
72-83	금속 및 금속 제품	56,410.9	80,556.7	2,000.8	5,604.8	58,411.6	86,161.4
84-90	기계류	112,094.9	564,415.5	6,905.6	6,888.9	119,000.5	571,304.3
68-71, 91-97	기타	313,063.1	63,036.7	47,434.9	498.9	360,498	63,535.7
	합계	1,696,233.6	931,182.4	101,008.4	72,901.3	1,797,241.9	1,004,083.7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

표. 2021년 11월 러시아 극동지역 주요 수산물 수출입 규모

(단위: 톤, 천 달러)

EAEU 코드	품목	해외*				CIS**				합계			
		수출		수입		수출		수입		수출		수입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톤	천 달러
0302	냉장수산물	0	0	-	-	-	-	-	-	0	0	-	-
0303	냉동수산물	98,846	233,521.7	1,005	3,244.7	19	24.2	-	-	98,865	233,545.9	1,005	3,244.7
03031	연어	11,304	48,018	-	-	0	0	-	-	11,304	48,018	-	-
030331	광어	541	4,466.6	-	-	-	-	-	-	541	4,466.6	-	-
030332	가자미	677	600.6	-	-	0	0	-	-	677	600.6	-	-
030339	기타 넙치류	619	493.2	-	-	0	0	-	-	619	493.2	-	-
030351	청어	12,992	3,628.8	-	-	0	0	-	-	12,992	3,628.8	-	-
030363	대구	5,426	17,870.4	-	-	0	0	-	-	5,426	17,870.4	-	-
03036 70000	명태	45,483	48,269	-	-	19	24.2	-	-	45,502	48,293.2	-	-
03038 93	농어	0	0	-	-	-	-	-	-	0	0	-	-
030391	알류	3,548	97,869.6	-	-	0	0	-	-	3,548	97,869.6	-	-
030399	지느러미, 머리, 꼬리 및 기타 식용 어패류	531	986.9	-	-	-	-	-	-	531	986.9	-	-
0304	생선 필레	3,720	11,982.8	48	189	0	0	-	-	3,720	11,982.9	48	189

0305	훈제 생선, 생선 가루	0.2	1.9	46	274	-	-	-	-	0.2	1.9	46	274
0306	갑각류	5,696	198,497.2	79	575.8	-	-	-	-	5,696	198,497.2	79	575.8
030614, 030633, 030693	게	5,244	190,837.8	-	-	-	-	-	-	5,244	190,837.8	-	-
0307	조개류	4,768	14,594.5	-	-	0	2	-	-	4,768	14,596.6	-	-
03072	가리비	271	496.4	-	-	-	-	-	-	271	496.4	-	-
03074, 03075	오징어 및 문어	4,041.4	11,028.2	82	441.9	0	0	-	-	4,041.4	11,028.2	82	441.9
0308	수생 무척추 동물*	1,667	4,167.9	-	-	-	-	-	-	1,667	4,167.9	-	-
03081	해삼	487	1,227.9	-	-	-	-	-	-	487	1,227.9	-	-
03082	성게	993	2,891.7	-	-	-	-	-	-	993	2,891.7	-	-

\* 주: CIS 국가를 제외한 모든 국가

\*\* 주: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벨라루시,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유지원 연구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북방·극지전략연구실  
(jwyoo21@kmi.re.kr/051-797-4765)

## 참고자료

a) [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https://dvtu.customs.gov.ru/statistic/2021-god/operativnaya-informacziya(2022.2.9. 검색))